

‘답없는’ KIA 불펜, 불안감 점점 고조



그야말로 눈부신 호투였다. 22일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선발 등판한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팻 단이 8이닝 1안타 무실점 13K의 완

극심한 기복 보이는 임창용, 그나마 ‘믿을맨’ 타선 기세↓ 불펜 약점 노출...트레이드 검토

하지만 승리는 팻 단의 몫이 아니었다. 그의 뒤를 이어 9회초 마운드에 오른 임창용이 첫 타자 나경민에게 볼넷을 허용했고 결국 이어진 도루와 집중우의 내야안타, 번즈의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내주고 말았다.

전날 경기에서도 3-2로 앞선 7회초 등판해 2사 2루에서 이대호와의 성급한 승부로 중점을 허용하며 불론 세이브를 기록했던 임창용은 22일 경기에서 결국 패전투수가 됐다. 승부처에서 연이어 무너진 임창용을 보는 KIA 벤치로서는 허탈없이 쓴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극심한 기복을 보이며 승부처에서 종종 무너지는 임창용이 KIA 불펜에서는 그나마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유이 한 카드’라는 점이다.

올 시즌 임창용은 32경기에 등판해 6승 5패 6세이브 3홀드 평균자책점 4.88을 기록 중이며 9이닝당 탈삼진율은 무려 12.04에 달한다. 하지만 22일 경기에서도 보여지듯 느닷없는 볼넷으로 자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KIA 주요 불펜 투수들의 올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가장 도드라진 약점은 바로 볼넷 허용이다. 어깨 통증으로 현재 1군에서 말소된 심종섭을 제외하면 모두 9이닝당 볼넷율이 5를 상회할 정도다. 대부분의 등판에서 볼넷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KIA 필승조의 공통적인 고관이다.

현재 10세이브를 기록하며 새로

운 마무리 투수로 자리잡은 김윤동 의 경우 IP(수비무관 평균자책점)이 6.25에 달할 정도로 매 등판마다 살얼음판같은 투구 내용을 보이고 있다. 홈런 허용률도 9이닝 당 1.53개로 결정적 순간 홈런을 허용하는 장면도 적지 않다.

6월 말 이후 불붙은 타선에 힘입어 전반기 막판 8경기까지 승차를 벌리며 선두 독주 체미를 갖췄던 KIA지만 타선의 기세가 한풀 꺾이자 불펜의 약점이 여지없이 노출되며 후반기엔 2승 3패에 그치고 있다. 2위 NC와의 격차도 어느새 5경기로 줄었다.

팻 단마저 살아난 선발진의 위력과 짜임새있는 타선을 감안하면 이번이 없는 한 KIA의 정규 시즌 우승이 확실시되지만 문제는 한국시리즈다. 개마 3연전에서 노출된 불펜의 약점은 올 시즌 90경기를 소화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단기전에서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특별한 전력 보강 요소가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트레이드를 통한 불펜 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위권과 11경기 이상 격차를 보이며 포스트시즌 진출이 사실상 무산된 하위권 팀들과 적절한 카드를 교환할 수 있다면 불펜 강화가 가능하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인 7월 31일까지는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11번째 우승을 노리는 KIA가 남은 기간 적극적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야구도 보고, 물놀이도 즐기고”

KIA타이거즈, 내일부터 금호타이어 핫 서머 페스티벌

한여름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이 잠시라도 더위를 잊을 수 있게 한바탕 물놀이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는 이번주 SK전을 시작으로 광주 KIA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지는 10경기 동안 야구도 보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금호타이어 핫 서머 페스티벌’을 준비 중이다.

좌측 외야 샌드파크에 가로 12m, 세로 6m 규모의 미니 수영장과 높이 4m, 길이 8m 크기의 물 미끄럼틀이 설치된다. 물놀이

장에는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안전요원이 있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은 물놀이, 어른들은 야구 열기에 흠뻑 빠질 수 있다.

KIA타이거즈 마케팅팀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 야구장을 찾는 가족 단위 팬들이 야구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금호타이어 핫 서머 페스티벌을 마련했다”면서 “야구와 물놀이를 동시에 즐기면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스

‘미친 원발’ 전남드래곤즈 안용우 J리그 시간도스로 이적

2014년 입단해 31경기 6골 6도움 활약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의 안용우 선수가 일본 프로 축구 J리그로 이적한다. ‘미친 원발’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남의 주전 측면 공격수로 활약한 안용우 선수가 J리그 시간도스로 이적을 앞두고 있으며 메디컬 테스트만을 남겨두고 있다. 안용우 선수는 동대대를 졸업하

고 2014년 전남드래곤즈에 입단했다. 데뷔 첫 해에 신인이란 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자신감과 여유, 날카로움을 가졌던 안용우의 원발은 전남의 대표적인 공격 옵션으로 거듭났다. 31경기에 출전해 6골 6도움이라는 빼어난 활약을 펼쳤으며, 이런 활약에 힘입어 2014 인천 아시안게

임 대표팀에 선발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전남에서 K리그 4번째 시즌을 뛰며 K리그 통산 111경기에 출전하여 13골 11도움을 기록했다. 이번 안용우 선수의 이적은 좀더 큰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안용우 선수의 의지와 가능성을 모고 적극적인 기용을 통해 안용우 선수를 잘 키워온 전남이 서로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노상대 감독도 “전남에서 뛰는 동안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준 선



수이다. 성실하고 노력하는 선수인 만큼 J리그에서도 성공할 것이다”며 “매 경기 부상없이 좋은 활약을 펼칠길 바란다.”고 안용우 선수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남동부체육본부장=김승호 기자

‘이적설’ 네이마르, 원더골로 가치 입증

바르셀로나,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서 유벤투스에 2-1 승리

올 여름 거대한 이적설로 세계 축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네이마르(FC바르셀로나)가 원더골로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다. 네이마르는 23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메트로피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벤투스(이탈리아)와의 2017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서 두 골을 뽑아내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리오넬 메시와 공격진을 형성한 네이마르는 전반 15분 선제골로 팀에 리드를 안겼다. 드리블 돌파 후 2대 1 패스를 주고받은 뒤 오른발 슈트로 유벤투스의 골망을 흔들었다.

두 번째 골이 앞편이었다. 전반 26분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은 네이마르는 드리블 돌파로 수비수들을 따돌린 뒤 득점에 성공했다. 컨트롤, 드리블, 슈팅 모두 완벽했다. 세계 최강급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유벤투스 수비진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네이마르는 전반 45분을 소화하고 벤치로 내려왔다.

네이마르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PSG) 이적설에 휩싸인 상태다. 스



페인과 프랑스 언론들은 연일 네이마르의 행보를 두고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FC바르셀로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네이마르의 잔류를 자신하고 있지만 당분간 그를 둘러싼 뉴스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트넘 핫스퍼(잉글랜드)는 PSG를 4-2로 제압했다. 토트넘은 2-2로 맞선 후반 37분 토비 알데르베이르트와 후반 43분 해리 케인의 골로 승리를 가져갔다.

추신수, 5경기 연속 안타 행진

4타수 1안타...텍사스, 탬파베이에 4-3 승리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추신수는 지난 19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부터 이날까지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지난 16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부터 8경기 연속 출루 행진이다.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52(322타수 81안타)를 유지했다.

1회초 첫 타석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선두타자로 나선 4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상대 선발 크리스 아처를 상대로 추신수는 볼카운트 1B2S에서 4구째 슬라이더에 헛스윙을 했다.

6회 1사 후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아처의 8구째 슬라이더를 노려져 중전 안타를 때려냈다.

후속타자 엘비스 앤드루스의 안타와 노마 마자리의 땅볼로 3루까



지 내야간 추신수는 상대 실책으로 홈을 밟았다. 시즌 53번째 득점. 추신수는 8회 헛스윙 삼진을 당해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다. 텍사스는 탬파베이에 4-3으로 물리쳤다.

1-3으로 끌려가던 텍사스는 6회 상대 실책으로 인한 추신수, 앤드루스의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아처의 폭투로 마이크 나폴리가 득점에 성공했다.

필승 계투조가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면서 텍사스는 그대로 승리를 거뒀다.

2연승을 달린 텍사스는 47승째(50패)를 수확했다.

뉴스스

황재균, 빅리그 입성 24일 만에 마이너행

보치 감독 “황재균 꾸준한 출전 보장해주고 싶어”

극적으로 빅리그 입성에 성공했던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23일(한국시간) 황재균과 스티브 오커트를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고 올랜도 칼리스테와 알버트 수아레스를 빅리그로 승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에서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던 황재균은 24일 만에 샌프란시스코 산하 트리플A 팀인 새크라멘토 리버 캣츠로 돌아가게 됐다.

부상으로 빠져있던 주전 3루수 에두아르도 누네스가 올스타 휴식기 이후 복귀하면서 황재균의 출전 시간은 크게 줄어들었다.

브루스 보치 감독은 황재균의 출전 시간을 위해 마이너리그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치 감독은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 더 머큐리 뉴스 등 외신들과 인터뷰에서 “황재균이 데타 출전이나 낯선 투수와의 대결 등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며 출전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 황재균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 우리는 그가 필요하다”며 “꾸준한 출전 시간을 보장해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황재균은 시범경기 27경기에서 타율 0.333(48타수 16안타) 5홈런

15타점 7득점으로 맹타를 휘두르기도 개막 25일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 지 못했다.

트리플A에서 6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7(254타수 73안타) 7홈런 44타점 33득점에 출루율 0.333, 장타율 0.476으로 준수한 성적을 거둔 황재균은 빅리그 승격 후보로 거론됐지만 좀처럼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다.

계약에 7월2일까지 메이저리그에 승격하지 못하면 FA 자격을 얻는다는 ‘옵트아웃’ 조항을 포함했던 황재균은 지난달 27일 이 조항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러자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하루 만에 28일 황재균에게 메이저리그 승격을 통보했고, 황재균은 29일 콜로라도전에서 결승 홈런을 때려내며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다.

데뷔전은 강렬했지만, 이후 이렇다할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누네스 복귀 이후로 출전 기회도 잡지 못했다.

황재균은 13경기에서 타율 0.167(36타수 6안타) 1홈런 3타점 1득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지난 18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 선발 출전했던 황재균은 이후 3경기 내내 벤치만 지키다가 22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교체 출전했다.

황재균은 앞으로 열흘 동안은 빅리그에 올라올 수 없다. 이후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다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